

# 모두가 속하여, 함께 섬기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사역

<포용 핸드북: 모두가 속하여, 함께 섬기는>의 개정판입니다.



# 모두가 속하여, 함께 섬기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사역

<포용 핸드북: 모두가 속하여, 함께 섬기는>의 개정판입니다.

모든 성경 인용구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신국제판(NIV)을 사용합니다.

Copyright © 2021 Reformed Church Press Edited  
by Terry A. DeYoung, Keith Dow, Becky Jones, Erika Fleming,  
Mark Stephenson, Christina Tazelaar, and Dan Vander Plaats.

모든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본책자의 내용을 사용하려면 Reformed Church  
(questions@rca.org; 616-698-7071)로 연락하십시오.

인쇄본을 주문하려면 Faith Alive Christian Resources  
(www.faithaliveresources.org; 800-333-8300)  
으로 문의하거나 www.everybody-belongs.com 을 보십시오.

## 헌사



**바버라 J. 뉴먼**  
**1962년 11월 15일 - 2020년 9월 18일**

바브 뉴먼은 통합교육과 교회 장애사역 분야에서 자상하고 격려하며, 인내심 있고 관대하면서도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2020년 여름에 갑작스럽게 바브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사람들은 모두 바브를 아주 잘 알았고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과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모두가 속한 통합교육센터> (All Belong Center for Inclusive Education)와 질랜드 기독교 학교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책 속의 말과 태도가 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바브 뉴먼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녀는 날마다 이 책처럼 살았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여러분에게도 그녀의 봉사정신과 포용심이 확연히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 목차

서론 ..... 9

## 제 1 장: 준비

접근 가능한 교회와 장애 옹호 ..... 11

장애에 대한 관점: 장애인을 환영하는 교회 ..... 16

장애란 무엇인가? ..... 18

장애에 대한 관점: 나는 소속되기 원합니다 ..... 20

시작하기: 교회의 접근성을 높이는 법 ..... 22

장애에 대한 관점: 수치심의 영향 ..... 24

## 제 2 장: 시작

교회에서 장애인의 적응을 돕는 법 ..... 26

장애에 대한 관점: 비장애인 교인의 특권 ..... 30

장애를 대하는 예절 ..... 32

애도와 장애를 대하는 법 ..... 34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기 ..... 35

장애에 대한 관점: 장애인 교인을 향한 태도 바꾸기 ..... 39

장애에 대한 관점: "장애인을 어떻게 도울까?" ..... 41

교회 접근성 평가 ..... 43

장애에 관한 잘못된 상식 ..... 46

## 제 3 장: 각각의 장애들

이동성 장애가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 48

만성 또는 말기 병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기 ..... 50

장애에 대한 관점: 치유와 치료의 차이점 ..... 52

장애에 대한 관점: 장애인도 말할 수 있다 ..... 54

청각장애인이거나 청력이 약한 사람과 대화하기 ..... 56

시각 장애 유형과의 의사소통 ..... 59

자폐증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 ..... 62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품는 상호작용 .....	64
정신건강과 교회 .....	66
장애에 대한 관점: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제거 .....	71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기 .....	73
장애에 대한 관점: 교회 안에서 정신질환과 함께 살아가기 .....	75
치매 걸린 사람과 대화하기 .....	78
장애에 대한 관점: 정체성 질문: 치매, 자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	80

#### 제 4 장: 더 생각할 문제들

돌봄에서 벗어나도록 간병인 돌보기 .....	83
간병인과 장애인 지원에 관한 질문 .....	85
장애인 인식의 달: 교회 예배 아이디어 .....	87
교회의 장애인 시설 정책 .....	89
장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 .....	91
장애에 대한 관점: 하나님 나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	95
교회의 장애 옹호자 또는 도우미의 역할 .....	97



### 온라인에서 더 깊이 알아보기

이 안내서의 내용과 여기에 담지 못한 많은 다른 자료들은 [www.everybody-belongs.com](http://www.everybody-belongs.co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에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서론

이 안내 책자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호기심이 많고 접근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거나, 장애인으로서 당신의 신앙 공동체가 더 쉽게 장애를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당신은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가 장애에 관해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당신이 알고 있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대변해 주어야 하는 친구나 자원 봉사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든지 간에 당신은 교회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며 장애인과 그 가족을 완전히 포용해야함을 옹호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과거 <포용 핸드북: 모두가 속하고 모두가 섬기는>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또한 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사역자로서 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포용 핸드북>의 처음 두 개정판은 북미주 개혁신교회와 미국개혁신교회의 연합 장애인사역에서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은 이 새로운 개정판을 장려하고 지원한 두 개의 사역단체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지평(Christian Horizons)과 엘림 기독교 봉사(Elim Christian Services)로서 둘 다 주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전 처럼 “좀 더 깊게 알아보기” 코너들을 제공하며, 여기서는 “장애에 대한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장애가 있거나 자신이 장애인과 가까운 삶을 경험하고 있는 “생활 전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완전한 포용을 향해 가는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하신 자원과 전문가를 찾아보십시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이미 장애인을 옹호하고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그 가족, 지도자, 자원봉사자들과, 특수교육교사, 지역사회 도우미 등이 있으며 이 명단은 계속 이어집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을 교회 생활로 이끌고 포용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도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속감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들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장 잘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배우도록 하십시오.

효과적인 사역은 관계를 맺는 사역이이기에 장애인 옹호를 위해 일할 때 사람들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참여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물을 줄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속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는 세상을 만드신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중입니다.

**테리 드영 목사, 미국개혁교회 장애인사역부**  
**마크 스티븐슨 목사, 북미주 개혁교회 장애인사역부**

## 제 1 장: 준비

### 접근 가능한 교회와 장애 옹호

#### 접근 가능한 교회의 목표

**접근성 있는 교회는 장애인이 교회생활에 완전히 참여하고 장애인의 삶에 교회가 전폭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참여하며 참여되는 복음 중심의 포용적인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이러한 우리의 목표는 전체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친절하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 교회사역에 없어서는 안될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고립과 단절을 줄이고 소속감을 증진시킨다.
- 장애인들이 공적 신앙고백을 하고 활동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그들의 영적인 삶을 양육한다.
- 장애인의 은사를 격려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함으로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게 한다.
- 우리의 목표는 교회의 모든 사람이 소속되고 모든 사람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다.

## 장애 옹호의 성경적 기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선포와 함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고 말씀과 행동을 통해 그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공생애 사역이 끝날 무렵 최후의 만찬 중에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보혜사 또는 «돕는자»로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를 돕고 장애인을 옹호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안내서에서 모든 교인을 목양하며 접근 가능한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교회 안의 장애인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 영적인 옹호 사역에 모범적으로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역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

-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에 근거하여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26).
-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각 구성원(각 사람)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 모두 필요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고린도전서 12:12, 22)
-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
- 모든 신자들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신자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4).

-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각 구성원은 몸에 꼭 필요하고 독특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7).
-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은 평등하고 필수적이지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가진 더 많은 부분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
-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후서 8:13).
- 건강한 교회에서는 모두가 서로 속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4:8-9).
- 건강한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봉사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 함께 일하고 관계맺기

의료, 교육, 사회 봉사단체들은 사람들에게 "자폐", "뇌성마비", "치매" 그리고 "황반변성"과 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이 병명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돕는데 유용하겠지만, 사람은 그러한 꼬리표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능력에 상관없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브 뉴먼은 <자폐증과 교회>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 시어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 방문하실 때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집 쓰레기통에 주사바늘이 왜 들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어머니가 방문하기 전에 적당한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요. 또한 어느날은 제가 오렌지 주스를 계산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오렌지 주스를 좀 마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에 과도히 집중한다면 그녀의 독특한 성격과 관심사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실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뇨병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웃고, 말하고, 울고, 쇼핑하고, 영화를

볼 뿐입니다. 비록 제가 시어머니의 당뇨병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감사하지만, 그것은 시어머니의 복잡하면서도 유쾌한 성격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장애를 안고 사는지 아는 것은 교회가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놀랍도록 복잡한 필요와 은사와 기쁨, 도전과 관심사를 가진 존재입니다. 장애인 옹호자인 우리들은 교인들이 사람 자체와 그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특정 병명이 장애인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을 수 있지만, 우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관계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일을 예로 들어 봅시다. 교육부서에서 카일을 주일학교에 배정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할 때, 카일의 다운증후군도 고려하지만 카일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를 안정시키고 동요하게 하는 것, 그가 가장 잘 배우는 방법, 그리고 그가 어려워할 수업 활동에 주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일의 은사를 고려하고 그가 교실과 교회에서 그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뉴먼은 누군가의 장애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녀의 가족이 지난 휴가 때 어떤 주를 방문했는지를 말해주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휴가에 대해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제공하겠지만, 휴가 때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장애인이 들어오고 그들이 있는 동안 그저 알고 지내다 그들이 떠나기까지, 그들 각자를 주목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을 알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

- <하나님의 잔치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 교회 안에 장애인을 환영하기>, 브렛 웹-미첼 지음
- <신앙 공동체에 장애인 포함하기 : 봉사자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지침>, 에릭 카터 지음
- <자연스러운 장애> ([www.disabilityisnatural.com](http://www.disabilityisnatural.com)) 에는 장애에 관한 언어와 태도에 대한 많은 유용한 기사가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관점

## 장애인을 환영하는 교회

스티븐 베다드

교회는 환영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하지만 환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할까요? 환영하는 것과 친근하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서로에게 친근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나 장애인을 반드시 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장애인에게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은 발달 장애나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견해가 바로 문자 그대로 "선입견"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건물 전면에 굵은 글씨로 "환영합니다"라는 카드를 써붙이거나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경사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이 도우미와 함께 도착하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말을 거나요? 그들은 눈을 피하려 하나요? 예상치 못한 소리나 제스처를 취했을 때 달갑지 않은 표정이 되나요?

교회가 가장 좋을 때는 모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품는 장소가 될 때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회중에서 떠나달라고 요청받는 가정의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어머니는 저에게 목사님이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을 예배에 데려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발작이 예배 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좁은 견해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자폐증을 가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큰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들이 설교 중에 시끄럽게 떠들자 목사님이 설교를 멈추셨고,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회중들에게 우리 모두가 환영받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환영은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 이상입니다. 진정한 환영은 모두를 교회생활에 완전히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역으로부터, 함께 하는 사역으로 전환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휠체어를 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가 채용된 이유는 우리가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뇌성마비 환자이자 시각장애인이 교회 카운실에서 일하는데, 장애 채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의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했던 한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 자녀들이 깨진 관계를 치유하는데 그 어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말 못하는 두 아이에 의해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이르기 전, 어느 한 예배에는 중독을 극복해가는 몇몇 청년이 있었습니다. 간증이 끝난 뒤 다운증후군을 앓는 한 여성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을 불렀습니다. 그날 방문했던 한 가족은 그 순간 때문에 지금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소명에 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중은 장애인을 거부하는 반면, 다른 회중은 그들을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봅니다. 최선의 교회는 모든 능력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스티븐 버나드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세인트 캐서린의 퀸 스트리트 침례교회를 섬긴다. 그는 작은 교회를 위한 장애사역을 주제로 아카디아 신학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마쳤다. 그는 아만다와 결혼했고 다섯 명의 자녀가 있다. 자폐증을 앓는 그의 첫 두자녀는, 그가 좀 더 환영하고 포용적인 교회를 옹호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는 썰렁한 농담을 즐긴다.



## 장애란 무엇인가?

### 정의

"장애인은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다양한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타인과 동등한 기준으로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방해할 수 있다." (제1조: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2006년 12월).

### 용어의 두 부분

이 설명은 장애의 두 가지 측면을 알려줍니다:

1. 장애는 다른 사람의 눈에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 신체적 장애, 마비나 다발성 경화증 등
  - b. 정신적 장애, 분열증이나 조울증 등
  - c. 지적/발달 장애, 다운 증후군 등
  - d. 감각 장애,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 등
2. 장애는 부분적으로, 온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다양한 장벽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장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물리적 장벽들: 휠체어 진입로가 없는 지름길과 접근이 불가능한 화장실 등
  - b. 통신 장벽들: 큰 글자 인쇄물의 부족 또는 비디오의 자막 부족 등
  - c. 태도 장벽들: 예를 들면 장애인을 고정관념으로 보는 태도는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약한 사람의 고용률을 약 40%에 불과하게 만듭니다.

장애인은 사람이며,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그들을 알아갈 때만이 우리는 각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거나 말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자폐적"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전자는 "사람 우선 언어"이고, 후자는 "정체성 우선"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들의 장애나 그들이 선호하는 표현을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관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효과적인 옹호자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 우선 언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교회와 일반 사회에서 장애라는 꼬리표가 경멸적으로 너무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몸이 불편한", "휠체어에 매인", "절뚝대는", 또는 "정신분열"이라고 부르거나 심지어 장애로 "고통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장애를 일종의 질병이나 저주로 보는 것을 그만두도록 돕기 위해, 사람 우선 언어는 우리로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엮인 직물 공예와 같은 기독 교회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체성 우선 언어를 선호하는 장애 옹호자들의 노력에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 장애에 대한 관점

## 나는 소속되기 원합니다

## 카릴과 크리스틴 킹

나는 교회 가족에 속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나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소속될 곳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소속됨이란 구성원으로서 또는 지체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의 소통하는 방식, 즉 자폐증 때문에 교회에서 거부당한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제가 대체로 자폐증때문에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저는 비장애인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의 자폐증으로 사람들은 저와 대화하기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떠나거나 밀어내 버립니다.

어떤 환경이나 그룹으로부터 밀려나는 것은 뼈에 사무치는 상처를 줍니다. 당신은 아무도 원치 않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가치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거나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나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받아주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만한 고통을 주고 종종 자폐증을 가진 우리들을 교회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아내와 저는 저희가 친구로 생각한 사람과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대학에서 함께 일하는 제 동료였고 자폐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교제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그녀는 왜 아무도 제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지 설명함으로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는 말을 아내와 함께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람들이 '정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면, 제가 교회에 들어갈 자리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기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1.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전형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대화에 우리를 포함시키며, 몸짓 언어와 풍자적 언어를 이해해주고, 우리와 함께 인내로 동행해 주십시오.
2.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서로 탓하기보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진심을 말하고, 진심으로 말하고, 당신이 하겠다고 말한 일을 하고, 만약 할 수 없다면 고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3. 개인적인 공격으로 질문을 받아들이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말하는 속도를 줄이거나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나 다른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경우 지레 짐작하기 보다는 질문을 해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가족같은 교회를 찾길 바라듯이, 어쩌면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러한 과정이 그들을 영접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속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라일과 크리스틴 킹은 결혼했으며 아이다호 보이즈에 살고 있다. 그곳에서 카라일은 보이즈 주립 대학 (BSU)의 입학 관리자로 일하고 있으며 크리스틴은 같은 대학의 구매부에서 일한다. 카라일은 자폐증이 있으며, 대중 강연을 통해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며, 자폐증 옹호위원회와 모임에서 섬기며, 교회에서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을 영접하고 가치를 옹호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 시작하기: 교회의 접근성을 높이는 법

교회를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장애인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첫 한 달 동안 교회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1. 같은 열정을 가진 교회 사람들과 연대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쪽이면 장애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어 줄 뿐 아니라 "우리 없이는 우리 일을 결정할 수 없어요"라고 외치는, 자신을 변호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우정그룹 리더(friendship.org)나 장애인을 섬기거나 지원하는 사역단체들, 그리고 장애 지원 단체와 같은 해당 지역의 교회 장애 옹호자와도 연대하십시오.
2. 여러분의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이 있는지 장애 옹호 및 알리기와 관련된 우편물이나 뉴스레터들을 살펴보십시오. <장애를 넘어서> (Breaking Barriers)나, [rca.org/disability](http://rca.org/disability) 와 [crcna.org/disability](http://crcna.org/disability) 를 보십시오.
3. 주일 예배나 교육과 같은 교회 전반의 가장 일반적인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그것들의 접근성을 평가하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가 "다같이 일어서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한다면 신체적인 능력이나 그것의 부족함을 덜 강조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려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몸과 영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4. 시각 장애인을 위한 주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성경 혹은 복음성가집 등과 같은 큰 글자 예배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청각 상실이나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미국 수화 통역사나 자막을 고려해 보십시오.
5.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교회 사역에 가장 잘 포함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목사님과 만나십시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교회 건물이 되도록 개선하는 두 세 번의

모임을 마련하십시오. 1년 중 언제 장애인식주간 예배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장애인식주간 예배는 장애인 사역을 특징으로 하고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용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근거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식주간 예배 아이디어와 자료는 87쪽을 보십시오.

6. 교회 생활의 모든 면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출석과 회원 자격뿐만 아니라 봉사와 지도자의 역할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역할에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능력이 있다는 가정 하에 시작하고 그들의 은사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장벽이라도 그 사람과 함께 확인해가며 일하십시오.

#### **첫 일 년 동안 교회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들:**

1. 지적, 시각적, 신체적, 청각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 건물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접근성 평가를 실시하십시오 (접근성 평가 서식은 43쪽 참조). 기록하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2. 26쪽의 "장애인의 적응을 돕는 법" 지침을 따라 시작해보십시오.

## 장애에 대한 관점

## 수치심의 영향

김중성 (사무엘)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경찰로 일했습니다. 나는 18살 때 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게 꿈이었지만, 끔찍한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뇌출혈과 정형외과 수술 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가 장애를 저주받은 것으로 믿고 장애인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장애는 저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수치심 문화는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존재합니다. 이런 만연한 관점은 온전했던 이전 제 모습과 비교해, 저의 장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 없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업무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때문에 퇴사해야 했습니다. 뇌가 손상된 사람은 사회에서 일할 기회를 잃습니다. 뇌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기에 만약 뇌에 부상을 입게 되면, 대중의 의견은 그 사람이 상담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 때, 저는 미국으로 와서 미시간 칼빈신학교의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장애인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미국 내 장애인 사역을 하는 한인교회 여러 곳에 지원했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뇌손상을 입은 목사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한국사회에서 느꼈던 대중적 수치심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작용하였습니다.

저의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면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청력 손실과 수치심 문제로 인해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그들이 했던 말을 반복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때문에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저는 제 외모와 청력 문제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교직원과 친구들이 생각할까봐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자란 문화의 편견과 부담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경향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한국 사람들을 종종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 그들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수치심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나누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나약하며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을 주셨고 정의를 위해 일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어릴 적부터 제 아버지 안에서 발견하고 제가 존경했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김중성(사무엘) 목사는 미시간주 와이오밍의 한인 개혁교회의 목사이며, 웨스턴신학교 장애사역 목회학박사 과정 중이다. 장애를 안고 생활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목회하고 한국 교회에 포용적 공동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 제 2 장: 시작

### 교회에서 장애인의 적응을 돕는 법

여기 여러분 교회의 모두가 소속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곳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장애인의 적응을 위한 일반적인 요령들이 있습니다.

#### 은사를 축하하고 필요들을 나누라

교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은사를 축하하는 문화를 만들고 필요를 파악하는 것을 환영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은사를 나눌 수 있는지 또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교회 지도자를 만나십시오. 많은 장애들이 숨겨져 있기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한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 필요에 따라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확인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은사와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 적응과 지원에 대한 몇 가지 제안된 질문은 85쪽을 보십시오. 교회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을 소외시키지 않았는지 찾아보십시오.

#### 교회의 장애인 시설 정책 수립하라

아직 장애인 시설 정책 (즉시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서식은 89쪽 참조)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이를 채택하도록 권장하십시오.

#### 의사결정에 장애인들을 포함시키라

특히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십시오. 때로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원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도 신체적인 치유를 원할 것이라 추정하곤 합니다.

## 장애인의 적응을 돕는 일반적 제안

- 특히 굵은 날씨에는 장애인과 나이든 성도들을 위해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 자원봉사자가 예배 및 다른 교회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준비하십시오. 장애인용 교회 뱅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당뇨를 앓는 사람들을 위해 과자와 주스 등을 가까이 준비해 주십시오.
-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필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준비해 주십시오.
- 예배 인도자들에게 촉감, 맛, 색깔, 움직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감각적인 예배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하십시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경험하기에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 사람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장애인들이 필요에 따라 일어서거나 걸어 나오지 못할 때 그것은 돌발 행동이 아니라 정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 어떤 장애는 파괴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장애는 어려운 행동발달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돌발행동은 건강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어떤 장애는 안전문제로 해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로 행하되, 또한 역사와 예배 속에 하나님은 종종 돌발적인 방식으로 임하셨음도 기억하십시오.

##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돕는 법

- 교회의 모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십시오.
- 게시판, 노래 악보 및 기타 교회 간행물 (및 미리 요청할 경우 점자 책 등)을 항상 큰 글자 인쇄물도 제공하십시오.
- 인쇄물, 웹 사이트 및 노래 가사를 포함하여 화면에 띄우는 모든 내용에 대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배경을 준비하십시오.

##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돕는 법

- 예배가 시작되기 전 사람들에게 설교 원고를 읽어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청각 장애인들이 설교를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음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청각 보청 시스템 설치를 고려하십시오 (hearingloop.org 참조).
- 수화 통역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미리 요청할 때).
- Rev.com 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여 모든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알러지나 화학제품에 민감한 장애인의 편의를 돕는 법

- 여러분의 회중이 천식, 폐기종, 또는 화학 약품에 민감성을 가진 이들을 위해 주의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교회에서 면도 후 로션, 남성용 향수, 여성용 향수 등을 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좋은 첫걸음입니다.
- 성찬식 기간 동안 와인과 일반 빵이 아닌 대체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포도 주스와 글루텐이 포함되지 않은/ 유제품이 아닌/ 땅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제공하십시오. 이러한 대안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 다른 성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도록, 알러지를 피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음식들에 이름표를 붙이도록 요청하십시오.

### 신체적장애인의 편의를 돕는 법

- 신체적 편의란 접근 가능한 출입구와 화장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이르는 통로의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강대상, 단상, 친교실, 교육실, 실내문, 음수대 등 건물의 다른 영역도 고려하십시오.
- 장애인 주차장 설치 및 출입구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평탄하며 조명이 잘 들어오게 하십시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주지시켜 주십시오.



#### 더 풍성한 온라인 자료

이 안내서의 내용과 여기에 담지 못한 많은 다른 자료들은 [www.everybody-belongs.com](http://www.everybody-belongs.co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은 상호소통적 기능과 자료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장애에 대한 관점

## 비장애인 교인의 특권

에이미 줄리아 베커

나이 든 폴리가 교회 입구의 계단 두 개를 오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때까지는 우리 교회 입구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을 교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때문에 교회 입구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폴리의 어려움은 우리 교회 카운실로 하여금 난간에 경사로를 만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예배당을 다시 고안하도록 했습니다. 환영에 방해되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를 찾는 구체적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종류의 장벽을 식별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장벽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지는, 눈에 띄지 않는 특권의 결과로 세워집니다.

특권이라는 단어는 원래 인구의 한 부류에 제공되는 일련의 법적 권리를 가리켰습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특권은 토지를 소유한 백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투표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특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확대되었습니다. 특권은 이제 이러한 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에 주어지는 사회적 이점을 칭하는데 사용됩니다.

장애인은 북미에서 역사상 오래동안 법적, 사회적 특권의 울타리 밖에서 살아왔습니다. 한때 장애인을 공립학교 제도에서 배제한 법이 있었고, 현재 일부 법률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권은 장애인을 배제하는데도 작용됩니다. 예를 들어, 뇌성마비가 있고 지팡이를 짚고 걷는 제 친구 제시카는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도시들은 가기를 피합니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우리 딸 페니는 유치원에서 직접 만나서 평가하지도 않은 채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배 장소를 포함한 공동체 공간은 그들의 건축과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사회적 그룹을 향하여 암묵적인 환영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특권은 종종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단절될 때 특권층과 약자 모두를 똑같이 해롭게 합니다. 어떤 형태의 특권이든 그것을 통해 세워진 장벽을 극복하는 첫번째 단계는, 분열과 그것이 영구히 주는 피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단계들은 역순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권의 음험한 해악 중 하나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에 더 가치 있고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미묘한 방식입니다.

분열과 공유하는 인간성에 대한 인식은 세 번째 단계인 환영을 확대하기 위해 취하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장애인이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부상하면, 교회는 사회적 분열의 폐해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치유는 건강한 구성원이 자신을 능력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장애 인식과 정보 그리고 행동을 통해 교회는 우리 전체 문화 내부의 사회적 분열을 더 잘 직시할 수 있고, 공동체 외부에서 온 더 많은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특권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는 우리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이미 줄리아 베커는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이며 신앙, 가족, 장애 및 특권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코네티컷 주 서부에서 남편 피터 그리고 세 자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페니, 그리고 윌리엄과 매릴리)와 함께 살고 있다.

## 장애를 대하는 예절

비록 여러분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환영하고 포용하고 싶어도 당신은 필수 예절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장애를 대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실행 원칙:** 모든 사람을 품위와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 악수를 하거나 손을 (혹은 보형물을) 잡으십시오. 아니면 주먹이나 팔꿈치를 부딪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왼손 악수를 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주의사항을 잘 들으십시오. 그가 보조 장치를 온전히 통제하려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이끌도록 장애인을 지지해 주십시오.
- 동반자나 지원자에게 말하기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직접 말하십시오.
- "불구", "몸이 불편한", "휠체어를 타는"과 같은 단어와 표현은 피하십시오. 때로 장애라는 말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메리는 귀가 안들려요 (또는 청각장애입니다)" 또는 "데니스는 휠체어를 사용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더 좋은 것은,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 장애인이 일상 업무를 수행할 때 지나친 칭찬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흔히 간증거리의 형태로 경험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오히려 더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 개인 공간의 연장이라고 여겨지는 휠체어에 기대지 마십시오.
- 근무 중인 안내견이나 반려견을 쓰다듬지 마십시오.
- 말하고 있는 사람, 특히 다르게 의사소통하거나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재촉하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차분하고 천천히 그리고 직접 말하십시오. 그 사람의 귀에 대고 소리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 사람들은 종종 하나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장애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번지기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청각 장애나 지적 장애를 더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하기도 합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인사할 때 당신의 이름과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십시오.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이 당신의 팔을 붙들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십시오. 몸을 기울이거나 회전할 때에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당신의 자세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휠체어를 탄 사람과 몇 분 이상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십시오.

혹시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서 장애를 가진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안녕하세요" 또는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그 사람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애도와 장애를 대하는 법

부모가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부상이나 질병으로 가족의 삶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진행성 장애나 부상으로 다른 기능을 잃었을 때 슬픔은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장애가 진행되는 많은 사람들은 먼저 치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는 대신 치유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 질병이나 장애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치유:** 내면의 통합, 양질의 삶, 그리고 의미, 목적 및 가치를 향한 성장.

우리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 하나님의 임재에 의지함.
- 듣는 귀, "내가 이것을 경험했을 때 나는 말이야..."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피하십시오.
- 공감하는 마음.
- 판단하지 않음.
- 단순히 함께 하려는 의지.
- 개방성과 투명성.

##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기

여기 교회나 목회 환경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령 뒤에 있는 원칙은: **아이 우선입니다.** 장애는 아이를 덜 된 인간이나 덜 가치 있고, 사랑과 양육이 덜 필요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요령

- 부모에게 그들의 자녀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그들과 그들의 자녀가 결정하게 하십시오.
- 만약 새로운 부모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기뻐하고 임신과 출산을 축하해 주십시오. 비슷한 진단이나 경험을 한 가족과 그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잠재적인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나 부모에게 관심사나 은사, 취미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 넘겨짚지 마십시오. 장애 아이를 가진 삶은 장애가 없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매우 유사할 수도 있고 매우 다를 수도 있음을 알고 계십시오. 그것은 부모와 형제자매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당신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쉽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듣고 배우고, 축하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 부모와 형제자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보십시오.
- 여러분의 교회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또래들의 영적, 교육적, 사회적 필요에 대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 자녀의 종교 교육을 돕고자 한다면, 그동안 학교와 가정에서 성공한 다양한 교수법과 사회화 방법에 대해 자녀와 부모에게 이야기하십시오.

- 아이들은 자랍니다! 때로 장애를 가진 성인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겠지만 그들은 이제 성인입니다. 장애가 있는 성인의 나이에 적절한 자료를 찾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 문제 행동에 대한 요령

감각적, 지적,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해 우리는 종종 모든 행동들이 부정적이고 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속단합니다. 모든 행동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행동 반응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잘못"이라고 가정하기보다는, 종종 충족되지 않은 필요나 이해받지 못한 것이 출발점이었기에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음을 분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때로 그들의 행동은 충족되지 않은 긴급한 필요를 전달하므로, 그런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십시오. 때로는 긍정적 행동 개입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다르게 표현하는 이들과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즉,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을 모델로 제시하고 격려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는 특정한 규칙을 따르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장애 어른/자녀, 가족, 자원봉사자,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협력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원리

- 들으십시오.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긍정적인 격려를 많이 하십시오.
- 활동이 바뀌게 되면 5분 전에 알려주십시오.
- 모든 참가자들이 성경 이야기, 활동 혹은 행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교적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참가자의 가족, 배우자,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적이고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하십시오.

- 시각 및 청각적으로 주의가 분산되지 않게 하십시오. 헤드폰은 좋은 역할을 하겠지만 가능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헤드폰이 다 필요할테니 말이죠! 헤드폰은 감각 입력 민감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 안전하고 구조화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십시오.
- 지시 후에 반응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주십시오.
-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갈 수 있는 공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사람에 따라 이것은 지원자가 있든 없든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모든 참가자들 사이에서 존중을 보여주고 보상하고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존중"이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존중을 나타내기 위해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힘겨루기를 피하십시오.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행동을 포기할지 아니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지 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라는 말로 가능한 그 사람이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 어려운 상황에 준비, 예방 또는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그 사람과 그리고/또는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도발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후속 조치를 계획하십시오.
- 그 사람이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통했던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활용하십시오.
- 특정 행동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앞으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 어떤 행동이 관심을 끌려는 목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노력하십시오. 때로는 주의를 끌려는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입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환경에 깊이 주의하십시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아이들, 또는 감각 통합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형광등의 웅웅거림,

누군가의 목욕비누 냄새, 셔츠 안쪽 상표의 느낌, 피부에 닿는 미풍 등입니다.

- (애슐리 피터슨 저 <장애 자원 지침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위한 실용 가이드>, 부록 D.에서 인용. 이를 보려면 [covchurch.org](http://covchurch.org).에서 "장애 자원 지침서 (Disability Resource Manual) 를 검색하십시오. 바브 뉴먼의 어린이 및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40분짜리 훈련 비디오인 도발 행동 방향 전환 (Redirecting Challenging Behaviors) 을 참조하십시오).

## 장애에 대한 관점

**장애인 교인을 향한 태도 바꾸기**

## 댄 밴더 플라츠

교회가 건축과 소통의 장벽을 허물면 장애인들은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장애인의 교회생활 참여는 항상 주변에 머물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에 관한 태도의 여정에 따른 5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회중이 그들 자신의 태도를 살피도록 돕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1. 무지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장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로 종종 불안해 하고 판단을 합니다. 전형적인 태도는 "그들의 장애는 죄나 신앙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면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2. 동정 -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앞을 못보는 저 분이 안타깝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도 그럴거예요." 교회가 접근성 있는 건물을 만들고 의사소통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면 회원들은 동정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3. 돌봄 -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부모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회 교육을 시작하거나 휴식하도록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회중의 삶에 통합됨에 따라 교회는 다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4. 우정 -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함.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다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시고, 서로 우정을 쌓으며 유익을 얻게

하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회원들이 회중의 삶에 온전히  
들어올 때 우정은 다음 단계로 진행 됩니다.

5. 함께 일하는 동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역에  
참여함. "장애를 안고 사는 우리와 장애 없이 사는 우리  
모두가 모든 선한 일에 함께 서로 격려하며 구비되어  
갑니다."

#### 참고 자료:

- "장애를 대하는 태도의 단계" 비디오 및 도표 :  
[www.the5stages.com](http://www.the5stages.com)
- 토마스 레이놀즈, <상처입기 쉬운 교제>
- 헨리 나우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아담>

댄 밴더 플래츠는 일리노이 주 크레스트우드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기독교 장애 사역인 엘림 기독교 봉사단의 사역개발 대표다. 댄은  
두 교단의 장애인 사역 자문 위원회에서 섬기고 있다. 2009년에는  
교회와 개인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고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5단계: 태도의 변화들 (The 5 Stages : Changing Attitudes)"를  
개발했으며 <장애에 대한 태도 변화>의 저자이다. 데니스 (히엠스트라)  
와 결혼했고 벤과 엠마의 아버지이다.

장애에 대한 관점

## “장애인을 어떻게 도울까?”

앨리슨 워터스

“하지만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크리스틴이 묻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저는 크리스틴 같은 목사들로부터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 젊은이를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예배 중 그가 산만하고 그의 거친 대화 스타일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행동을 바꾸도록 도울 수 있는 도구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우선 소속감의 신학을 강조하고 신경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장애인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충동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녀가 기대하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인데 그녀는 성도들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젊은이를 더 잘 적응시키는데 도움을 줄 도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도구들은 가치 있는 것이지만 소속감과 깊은 수용의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영구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규범”에 적응하도록 돕거나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 준다면 그들은 복잡다단하지만 아름다운 연약함의 역사를 놓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변혁시키는 쪽의 소속감을 배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의 공동체적 무의식 속에 파괴적인 사상을 심었습니다. ‘생산성과 성취는 사람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CEO는 청소부보다 더 가치 있고 쿼터백은 장비 관리자보다 더 가치 있다.’ 이런 사상은 소속됨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왜곡시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속감을 성취되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도록 단계나 도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조된 존재로서의 우리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인 아버지, 예수, 성령 사이에 존재하는 완벽한 소속감으로부터 흘러 나온 것입니다. 소속감이란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고 진실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이 소속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이 이미 소속되어 있음을 더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독교 공동체의 첫단계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조금은 혼돈되고 종종 불편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가족과 같은 연계와 풍성한 상호관계가 이뤄집니다. 생산성과 성취의 윤리를 향한 아름다운 저항 행위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세련된 개성에 근거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에 기초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소속되기 위해 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며, 바로 우리의 본성 자체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엘리슨 워터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더럼에서 모든 종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삶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인 리얼리티 선교회의 임상 책임자다. 그녀는 듀크 신학교와 노스 캐롤라이나 - 채플 힐 대학에서 신학과 사회 복지를 공부했으며, 그녀의 경력은 주로 신앙 공동체가 신경 다양성(neurodiversity)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교회 접근성 평가

이 교회 접근성 평가는 교회의 장애인 접근성을 평가하는 출발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www.faithward.org/audit](http://www.faithward.org/audit) 에서 접근성 측정 검사를 작성하면 교회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결과와 권장사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태도의 장벽들:

-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그 간병인에게 예배, 리더십 및 교회 프로그램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질문합니다.
- 우리 교회는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참여시킵니다. 장애인들은 교회 위원회나 다른 지도부에서도 봉사합니다.
- 우리 교회에는 장애나 접근성 위원회 및/또는 교회 장애 옹호 또는 접근성 담당자가 있습니다.
- 안내, 교사들, 청소년 지도자/멘토들은 장애인을 맞이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적절한 방법에 관해 교육 받습니다.
- 우리 교회는 접근성/장애에 관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교회 지도자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간병인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목회적 돌봄을 포함한 필요에 부응합니다.

### 의사소통의 장벽들:

- 전체 조명은 광고, 설교, 읽기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 찬양집, 성경, 게시판, 뉴스레터, 인쇄물은 큰 글자 인쇄물, 오디오, 디지털 (또한 미리 요청받으면 점자 등)과 같은 대체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그에 대한 정보는 눈에 띄게 진열하고 정기적으로 전달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그날 설교의 복사본과 예배의 회화적 요소들을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자막은 시각적 자료와 함께 사용합니다.

- 우리 교회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가능한 보청기 (적외선, 보청기, FM)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전 준비가 되었을 때는 수화 통역이 제공됩니다.

### 시설과 건축의 장벽들:

- 적당한 숫자의 장애인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사로 (경사면이 1:12 기울기 이하)를 통해 건물 안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옷걸이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모든 층들은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입구와 복도는 휠체어 운행을 방해하는 장애 (문틀, 격자, 두꺼운 매트 등)를 제거했습니다.
- 문 손잡이는 모든 안쪽 문에 레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방들의 문들, 특히 세면실의 문은 폭이 최소 36 인치 (0.91m)입니다.
- 이동 및 지지를 위해 적절한 난간이 모든 화장실 구역에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난간은 병원 설비 높이에 달았습니다. 모든 싱크대 꼭지는 무릎으로도 작동할 수 있고 절연 파이프와 레버 형태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적어도 하나의 화장실 변기는 높은 시트를 가지고 있고 측면 이동을 위해 변기 옆에 공간이 있으며 큰 동력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성별 구분없는 욕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배실에 앉을 곳 (앞줄 옆이나 뒷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교단 및 강단, 무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교회 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예배와 다른 교회 활동들에 "향수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며, 참가자들은 향수나 면도 후 로션 바르는 것을 자제합니다. 향기가 없는 촛불이나 비누, 세제, 세정제, 공기청정기, 그리고 세안 티슈 등이 따로 사용됩니다.
- 운전을 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제공됩니다.

## 장애에 관한 잘못된 상식

다른 사람들처럼 장애인들은 고정관념과 싸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면하는 장벽은 사람들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태도는 종종 잘못된 정보와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오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일반적인 장애 신화들에 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 장애 신화 1 : 장애인은 용감무쌍하다.

사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이 용감무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에 적응하는 것은 "멋진 태도"라기보다는 그런 생활방식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 장애 신화 2 :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한되고" 혹은 "휠체어에 매인" 사람들이다.

사실: 휠체어는 자전거나 자동차와 같이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적인 보조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휠체어 덕분에 이동의 자유를 얻습니다.

### 장애 신화 3: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남의 입술을 읽을 수 있고,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을 얻는다.

사실: 입술 읽기나 연설 읽기 기술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다르며 결코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대부분 나머지 감각들을 더 발달시키지만 "육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 장애 신화 4 :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더 편안함을 느낀다.

사실: 이 말은 늘 편견을 강화시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지내며 서로의 관계와 우정으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 장애 신화 5 :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실: 친절과 연민을 보이는 것이 기독교적 소명이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의 뜻에 맞춰야 하고, 그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겸손하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장애 신화 6 :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장애에 대해 묻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실: 많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억제되지 않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 어른들이 당황스러워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꾸짖는 것은 장애가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은사, 그리고 필요를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대화하려 할 것입니다.

**장애 신화 7 : 장애인의 삶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처럼 학교에 다니고, 결혼하고, 일하고, 가족을 갖고, 빨래를 하고, 식료품을 사고, 웃고, 울고, 세금을 내고, 화내고, 편견을 갖고, 투표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꾸니다.

**장애 신화 8 : 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

사실: 누구나 성적 활동에 적응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연적으로 또는 입양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적인 존재입니다.

## 제 3 장: 각각의 장애들

### 이동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이동성 장애는 걷기와 같은 큰근육 동작부터 손으로 물체를 조작하는 작은근육 동작에 이르기까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말합니다. 이것은 불안정한 다리를 가진 사람들과 지팡이나 보행기 혹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이동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 내려다보며 말을 하기보다 그들과 동등한 높이에서 대화하는 것 등입니다.

- 사람들이 요청할 때만 그들을 돕고, 가능한 그들이 독립적이 되도록 지원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사람을 계단 위나 아래로 옮길 필요가 있다면 당신이 들어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곳과 방법대로만 하십시오. 또한 이동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부적절한 도움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전문가입니다!
-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예상한다면 (2분 이상) 의자에 앉거나 무릎을 꿇어서 눈높이를 맞추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들이 편안해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좀 더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있는 비장애인 동료에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휠체어나 기타 적응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십시오.
- 만약 여러분이 외출을 계획한다면 휠체어 사용자나 다른 접근성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당혹감이나 좌절감을 주지 않기 위해 목적지에 어떤 장벽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직접 다가가서 그들에게 공간이 충분한지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겸손을 보여주고, 그들을 자신의 필요에 대한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다 온전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열망을 전달해 줍니다.

참고 자료:

- 접근성 및 인식 자료들: [www.crcna.org/disability](http://www.crcna.org/disability),  
[www.rca.org/disability](http://www.rca.org/disability)
- 접근성이 높은 교회 네트워크: [www.canaccess.org](http://www.canaccess.org)

## 만성 또는 말기 병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기

만성적이거나 말기 병에 걸린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을 하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때문에 사람을 피하는 것은 답은 아닙니다. 대신, 만성적이거나 말기 병에 걸린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 다음의 지침을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 병을 인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암”이라는 단어 사용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픈 사람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거나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게 하세요. 종종 감사와 응원의 경험은 슬픔과 고통 후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 함께 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단순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종종 힘이 됩니다.
-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 모든 것을 “영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혹은 질병이나 상해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 제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고통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병원 예약에 동행하거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질병이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주도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암에서 회복했을 때를 기억해요” 라든지 “우리 삼촌은 바로 그 암으로 돌아가셨죠...” 등. 당신의 의도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거나 심지어 희망적 이야기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만성적이거나 말기 병에 걸린 사람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대화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해 듣는 것은 더 큰 희망고문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참고 자료:

- 우물물 사역 (wellspring.ca/): 캐나다 전역의 지역사회 센터들을 기반으로 둔 네트워크로 누구에게나 각각 무료로 그리고 의사의 진료 의뢰서 없이도, 초기와 말기 어떤 종류의 암이라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쉼 사역(restministries.com):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사역.
- 조니 이어렉슨 타다와 스티븐 에스테스, <하나님이 우실 때: 왜 우리의 고통은 전능자에게 중요할까?>

장애에 대한 관점

## 치유와 치료의 차이점

베다니 맥키니 폭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는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치유하는 많은 기사들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치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말하는 "치료"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문화는 의학적 관점을 통해서만 신체와 장애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의 치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신체적 치유나 치료를 의미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히 복음서 저자가 자세히 말하는 치유 기사들에서 우리는 이러한 만남이 치료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치료가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몸이 바뀌었을 때 이야기가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복음서 저자들은 신체 치료의 순간을 훨씬 넘어서서, 신체 치료가 요점이라면 별로 상관없을 세부사항을 계속 보고합니다. 이것은 치유가 복음서에서는 치료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치료는 단순히 신체(부분)의 변화일 뿐 몸은 결국 악화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치유는 훨씬 더 크고 누군가의 일평생에 관여합니다.

예수 기사의 맥락에서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보기, 걷기 등)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사회 공동체와 예배 공간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 내부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장애인들에게 계속되는 진실). 따라서 예수의 치유 작업은 전인적인 변화를 수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치유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치료와는 별도로 사회적, 관계적, 영적, 그리고 많은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는 자주 그 사람 (그리고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딸, 아들, 믿음의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었지만 더 넓은 문화에서는 늘 인정되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치유될 때 공동체에 더 온전히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인식하고 종종 따르는 자나 예배자가 되었고 때로는 고향으로 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라는 의미 있는 소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치유의 측면이며 치료를 넘어섭니다.

남아 있는 질문: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치료를 치유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몸을 돌보는 것은 예수에게 중요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치유 사건들 사이의 공통적인 것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기분이 좋아져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신체 치료는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거나 심지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몸과 마음에 이미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치유가 신체 치료를 포함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셨을 때 이런 해로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전인적인 치유(치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를 의미합니다. 공동체와 더 깊은 통합, 예수와의 관계성 증가,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여로 등등. 이런 종류의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다니 맥키니 폭스 박사 목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끌고 참여하는 로스앤젤레스의 모두 사랑 받는 교회의 목사이다. 그녀는 또한 <장애와 예수의 길: 복음서와 교회에서의 전인적 치유> (IVP Academic, 2019)의 저자이기도 하다.

장애에 대한 관점

## 장애인도 말할 수 있다

미리암 스파이즈

저는 평생 뇌성마비로 제 목소리가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장애권리 옹호자들이 과거에 말했듯이, "우리 없이는 우리에게 대한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는 내 인생에서도 늘 진실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소외되어 들리지 않는 것은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 (물리적, 발달적, 혹은 감정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예수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어느 날 친구와 저는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보통은 혼자 잘 먹지만 겹으로 쌓인 햄버거여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셨어요? 너무 덥지 않은 지금이 그녀에게는 더 좋을 거예요" 라며 나를 제3자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알 수 없어, "그래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 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는 "나는 토론토에 삽니다" 라고 대답했고 나는 "나는 안카스터에 살아요" 라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대답에 놀란 듯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원치 않고 기대치 않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에 대한 요한의 기사 (요한복음 9장)와 같이 무시당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남자의 부모를 심문했을 때 그들은 그가 그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지만 그를 대변하는 대신 말하기를,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는 나이 찬 성인이니 그가 스스로 대답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는 이런 말들이 긍정적인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위협적인 의도를 가진 그들에 대한 도전의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들 대신 부모에게 물어봄으로 당시 지도자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빠지는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백인이요 교육 잘 받은, 안수받은 목사요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많은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같이 나에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수와 이 소경 남자의 이야기는 제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심지어, 특히, 제가 작아진 기분이 들 때에도 저에게 계속해서 나누라고 강권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도울지 등의 진리를 선포할 기회를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만드는 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들이 이러한 성찰과 자신들의 경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와 사역으로 초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해로운 가정과 무시에 도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서로의 차이점을 넘어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을 섬기는 예수의 본보기를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미리암 스파이스는 캐나다 연합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로 현재 토론토 엠마누엘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이며 장애인이 섬기는 사역을 연구하고 있다. 그녀는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미리암은 온타리오 주 해밀턴에 살고 있다.

## 청각장애인이거나 청력이 약한 사람과 대화하기

청각장애인이거나 귀가 잘 안들리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화를 알아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수화는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는 훌륭한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화는 하나의 의사소통 도구일 뿐이고 청각장애자나 귀가 잘 안들리는 사람들 모두가 의사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싶은 특정 인물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청각장애와 귀가 잘 안들리는 것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과 귀가 잘 안들리는 사람들 공동체는 다양합니다. 청력 상실의 원인과 정도, 발병 연령, 교육 배경,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각자가 청력 상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식별하는지는 개인적인 것이며 청각장애와 말이 잘 안들리는 것의 동일시, 그들이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의 정도, 또는 발병시 상대적인 나이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성인 청력 상실"로 부르며 그들이 늦은 시기에 청력을 상실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청각-시각 장애"라고 부르는데 이는 보통 그들이 어느 정도의 청력 손실과 어느 정도의 시력 손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력 상실자"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대문자 «D»)은 때로 자신을 별도의 언어와 문화 집단으로 파악하고 스스로를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용어는 "귀먹은", "귀머거리" 및 "듣기가 어려운" 등입니다 (출처: www.nad.org).

여기 어느 정도 청력을 잃은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요령들이 있습니다.

- 너무 빨리 진행하거나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과도한 강조 없이) 말하십시오. 짧은 문장들은 일반적으로 이해와 접근하기에 더 좋습니다.
- 가능한 경우 주변 잡음을 줄이십시오. 문을 닫고 텔레비전, 음악, 또는 라디오를 끄십시오.
- 듣는 이와 마주보십시오.
- 듣는 이에게 당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만약 이것이 그들의 대화 접근 방식이고 도움이 된다면,

상대방이 당신의 얼굴에서 표현이나 말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 손이나 다른 물건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껌을 씹지 마십시오.
- 얼굴에 적절한 빛이 들게 하십시오. 창문 앞이나 빛을 가리고서 있지 마십시오.
- 글을 쓰거나 걷는 동안에는 말을 피하십시오.
- 말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십시오. 문장의 시작 부분에서 듣는 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 방해물을 최소화하십시오.
- 대화 주제에 대한 상황별 단서들을 제공하십시오.
- 그룹이 모인 곳에서 음향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십시오! 마이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묻지 말고 투표로 정하자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이크 없이 한 질문은 마이크를 가진 사람이 반복하십시오.
- 가능하면 그룹으로 모인 상황에서 교회 예배 등에 따라 연설자와 함께 수화 해석을 제공하십시오.
- 혹 오해가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반복해 달라고 부탁하고 당신이 이해한 부분을 반복하십시오. 그룹으로 모인 상황에서는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제기된 질문들을 반복하십시오.
- 상호 이해를 증진을 위해 핵심 단어들을 적으십시오.
- 소그룹의 자리를 배정할 때 바람직하게는 원이나 원형 테이블로 좌석을 배치하십시오. 청력 손실을 입은 개인들에게는 다른 장소를 제공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룹이라면 이들의 온전한 참여를 위해 다른 장소를 제공하십시오.
- 대규모 모임에서는 연설자에게 개요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

- 캐나다 청각 장애인 협회 : [cad.ca](http://cad.ca)
- 국가 청각 장애 협회 : [www.nad.org](http://www.nad.org)
- 보청기에 대한 정보 : [hearylloop.org](http://hearylloop.org)

## 시각장애 유형과의 의사소통

실명 및 시각 장애 산업청 (ibvi.org)에 따르면 시각 장애의 정의는 "안경과 같은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특별한 정도의 시력 감소"입니다. 실명은 "상해, 질병 또는 유전적 상태로 말미암아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네 가지 용어로 시각 장애와 실명을 묘사하는데 - 부분 시력, 낮은 시력, 법적 실명 및 완전 실명 입니다.

- 부분 시력: 부분적 시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 눈 또는 두 눈에 부분적인 시력이 있습니다.
- 낮은 시력 : 잘 보이는 안구의 시력이 20/70 보다 낮은 시력으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개선할 수 없는 심각한 시력 장애가 있습니다..
- 법적 실명 : 가장 잘 보이는 안구의 교정 시력이 20/200 입니다. 만약 안경과 같은 시각 보조 장치로 사람의 시력을 20/20 까지 교정할 수 있다면 법적 실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완전 실명: 완전한 시력 상실 (실명 및 시각 장애 산업청, [ibvi.org/blog/blind-vs-visually-impaired-whats-the-difference](http://ibvi.org/blog/blind-vs-visually-impaired-whats-the-difference))

시각 장애의 계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니 여기 부분적 시력이 있거나 낮은 시력, 혹은 법적실명이나 완전 실명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대화하거나 그 대화 자리를 떠날 때 당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 정상적인 어조로 말하십시오. (왜 그런지, 시력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소리를 지릅니다.)
- "보다" 나 "보기," 혹은 시력에 대한 비유 같은 시각 관련 말들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조심하되, 그것에 너무 과념치는 마십시오. 어느새 이런 것들이 대화에 사용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주변 환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 6피트 전방 방 한가운데에 테이블이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 시각 장애인을 안내할 때 소리, 냄새 및 거리와 관련된 설명 문구들을 사용하십시오.
-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걸을 때 당신의 팔을 내어주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팔꿈치를 내어드리고 시력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당신을 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걸으십시오.
- 안내견들은 일하는 동물이므로 애완동물로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지팡이를 잡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 가능하면 늘 큰 글자 인쇄물, 오디오, 디지털 텍스트, 점자 등 여러 형식을 준비하십시오. 시각 장애자 각자가 선호하는 형식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형식을 사용하거나 선호하는지 짐작하지 마십시오.
- 적절한 조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게시판, 찬양악보 및 기타 교회 간행물은 정기적으로 큰 글자 (그리고 미리 요청하면 점자) 를 제공하십시오.
- 인쇄물, 웹사이트, 그리고 찬양 가사를 포함한 모든 시각자료들에 대해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배경을 사용하십시오.
- 의견이나 질문 또는 염려가 있으면 함께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십시오. ("기본 예절: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직원과 장애 국립 센터에서 요약).

더 많은 정보:

- 미국 맹인 협회: [www.acb.org](http://www.acb.org)
- 맹인을 위한 미국 재단: [www.afb.org](http://www.afb.org)
- 캐나다 국립 맹인 연구소: [www.cnib.ca](http://www.cnib.ca)
- 캐나다 맹인 협의회: [www.ccbnational.net](http://www.ccbnational.net)
- 전국 맹인 연맹: [www.nfb.org](http://www.nfb.org)



#### 온라인에서 더 깊이 알아보기

이 책의 내용과 여기에 담지 못한 많은 다른 자료들은 [www.everybody-belongs.com](http://www.everybody-belongs.co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에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

자폐증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장애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보는 단순한 신경계다양성의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장애로 보는 첫번째 관점으로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접근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폐인들은 다양한 재능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담에 "자폐증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났다면 당신은 한 명의 자폐증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독특합니다. 교회는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의 은사와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들의 의사소통, 행동, 그리고 감정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폐증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성 언어를 덜 사용하든지 혹은 천천히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사소통 장치 사용과 같은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 사용.
- 언어 및/또는 움직임 메커니즘의 반복적인 사용.
- 눈을 거의 안 마주침.
- 동료 관계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관계 맺기를 갈망함.
- 즉흥적이고 상상하는 놀이가 부족함.
- 물체의 부품들, 반복된 루틴들, 혹은 주제들에 끊임없이 고정됨.
- 진술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
-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숨거나 탈출하려고 시도함. (미국 자폐학회: [autism-society.org](http://autism-society.org)).

자폐증인 교회 구성원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몇 가지 요령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독특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가능한 경우 이름을 불러 일반적인 인사말을 전달하십시오.
- 악수나 다른 사교적 제스처를 제안하되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 참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들 (예를들어 교육, 예배 또는 예배를 섬길 기회를 위해 친구와 동행함)을 개인 및 가족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 일과의 반복적인 진행은 자폐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 갑작스런 일에 놀랄 수 있습니다. 활동을 설명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파악하여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보통 도움이 됩니다.
- 시각적인 지침으로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이것은 자폐 단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유용하다고 증명된 "사회적 이야기들"이 포함됩니다.
- 어떤 자폐인은 혼란을 분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좌절감이나 혼란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 예상치 못한 박수 등 갑작스럽고 시끄러운 소음은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큰 소음을 편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특정한 감각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럽거나 심지어 고통스럽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참고 자료::

- <자폐증과 교회>, 바바라 뉴먼
- <자폐증과 믿음: 공동체로의 여정> (<https://rwjms.rutgers.edu/boggscenter/products/AutomicandFaith.html>)

##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품는 상호작용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다음의 요령들은 모든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악수, 팔꿈치나 주먹 부딪치기, 또는 다른 사교적 제스처 등과 같은 통용되는 인사법을 확대하십시오.
- 만약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알아들은 척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을 하십시오.
- 필요하다면 예배 중에 친구나 가족, 회중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들을 환영하고 함께 앉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인(가족 또는 유급 간병인)이 동행하는 경우 그도 반드시 함께 환영하십시오. 간병인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간병인과 소통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지만 초점을 장애인에게 맞추고 간병인과만 소통하지는 마십시오.
- 정신 연령이나 인지 능력보다는 나이에 따라 그 사람을 생각해 주십시오. 성인을 성인으로 대하십시오.
-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애칭으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칭하거나 성인을 "아이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 지적 장애인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포용의 어려움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교회 환경에 있습니다.
-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나눌 은사가 있음을 가정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 봉사하고 인도하는 방법에는 간증, 환대, 기도 동역, 성가대에서 노래하기, 성경이나 예식서 읽기 (리허설이 필요할 수 있음), 연극, 춤, 적절하다면 봉사회나 노인 사무실에서 섬기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적인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다르게 보일지라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 그 사람이 직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어떤 장애인에게라도 리더십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당신의 교회에 도전하십시오.
- 읽기가 덜한 예전들 (그리고 특히 빠르게 많은 단어들을 읽어야 하는 예전들)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등 회중 언어가 될 수 있는 반복적인 문구들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자료:

- 우정 사역 (friendship.org 그리고 togethersmallgroups.org): 우정 사역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장애인이 예배와 성찬,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 <장애가 있는 아이를 포함한 어린이 돕기>, 바바라 뉴먼
- <신앙 공동체에서 장애인을 포용하기>, 에릭 더블유 카터 슘

## 정신건강과 교회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요

신경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인간 뇌의 신비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기관은 수십억 개의 신경 세포인 뉴런이 있으며, 그리고 수천의 뉴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신경 자극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조 개의 가능한 경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종종 사회적, 환경적, 맥락적, 신경학적, 외상적 또는 물려받는/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장애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결코 믿음의 부족이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의 도덕적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은 뇌의 생화학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심장마비, 뇌졸중 또는 암과 같은 의학적 상태가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과 다른 조건들이 임상적 우울증이나 혹은 다른 정신질환의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들을 기저질환의 일부로 여기고 치료할 때 잘 반응합니다.

다른 요소들도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고립감을 느끼거나 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정서장애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다른 위험 요소로는 빈곤, 의료혜택 접근 부족, 사회적 소외, 트라우마와 상실의 경험, 그리고 삶의 목적이나 의미의 부재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에 대해 계속 더 많이 배우고 있지만 문제에 대한 진단이 그 사람 전체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독특한 개인들이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술, 은사, 재능,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신건강 질환의 종류와 다양한 치료

정신건강 질환은 불안장애, 중독, 강박장애, 산후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 섭식장애,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과 신앙 공동체 파트너십은 특정 정신질환에 대한 소개 등을 제공하는 "정신건강: 신앙 지도자를 위한 가이드" 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조하려면 [bit.ly/MentalHealthFaithLeaders](http://bit.ly/MentalHealthFaithLeaders) 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은 약물치료와 다양한 종류의 대화치료 또는 상담을 병행하면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 단지 3분의 1만이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둘러싼 낙인, 질병과 치료 옵션에 대한 인식 부족, 재정적 한계 및/또는 부정적인 종교적 함축에 기인합니다.

### 신앙의 역할과 교회의 지원

신앙공동체는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낙인을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종종 특정 신학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종교 단체들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실제적인 질병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믿음의 부족이나 그 사람의 고백하지 않은 죄로 돌리기도 합니다. 때로, 심지어 약 복용을 중단하고 기도에만 의존하도록 격려하기도 합니다. 때로, 가족 구성원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족에게 비난을 가하기도 합니다.

과학, 의학, 그리고 신앙은 모두 한 사람의 치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치유를 추구하며,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 또는 육체적 치료가 아니라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평화와 같은 것입니다 (치유와 치료의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고 장애적 관점 기사: "치유 대 치료" 52쪽 참조).

신앙과 과학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할 때 모두 필요하고 서로를 보완합니다. 약물은 증상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경험과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됨이 진정한 치유로 이어집니다. 가족 구성원, 친구, 도움을 주는 신앙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어둠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릴 수 있게 합니다.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들은 이사야 43장 1절-4절, 시편 139장 7절-12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6절 18a절 등이 있습니다.



## 회복을 촉진하는 요인들

- 공동체 의식.
- 신앙 전통에 따른 기독교 의식들.
- 기도, 간증, 명상과 같은 다른 영적인 습관.
- 정신건강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포함한 개인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

##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들

- 인종차별, 능력주의, 성차별과 같은 차별.
-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의 부족.
- 권위주의적 관점 및/또는 개방성의 결여.
- 종교와 정신 건강 공동체 사이의 역사적 분열.
- 일관된 공동체와 돌봄 실행의 부족.

## 신앙 지도자를 위한 추천 사항

-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환영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의 기초에 대해 교육하십시오.
- 공동체 및 소속감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적 및 시스템적 차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자신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을 공개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긍휼함으로 대하시며 그 낙인과 싸우십시오.
- 당신의 웹사이트에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십시오.
- 영성 훈련 및 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그리고 지역 사회의 예배 생활을 통해 (설교, 기도, 예배, 및 예전 등) 정신건강 문제에 직접 참여하십시오.
- 어떤 경우에는 예식이나 그들의 신앙 전통이 내세우는 영적인 습관 때문에 촉발될 수 있는 종교적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테레사 파스쿠알레라 저 <성흔> 을 보라.).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들

- 적절한 돌봄과 주거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찾기.
- 정신건강 법규에 대해 배우기.
-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기.
- "같은 생각(same page)"으로 맞추기.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죄책감, 수치심, 분노, 혼란, 외로움, 두려움, 걱정, 절망 등의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다루고 돕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지원 단체에 가족들을 추천함으로써 도울 수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적이고 내적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보살핌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교회는 또한 지역사회 지원 단체들 간의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그들의 헌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자료를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 수잔 그렉-슈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신질환 및 신앙의 가족들 학습 가이드> (무료 다운로드, 배달시\$8, MentalHealthMinistries.net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용한 자료들:
  - 워렌 킹혼: [worship.calvin.edu/resources/resource-library/warren-kinghorn-on-mental-health-and-christian-worship/](http://worship.calvin.edu/resources/resource-library/warren-kinghorn-on-mental-health-and-christian-worship/)
  - 아브라함 누스baum: [faithandleadership.com/warren-kinghorn-and-abraham-nussbaum-friendship-and-people-mental-illness](http://faithandleadership.com/warren-kinghorn-and-abraham-nussbaum-friendship-and-people-mental-illness)

## 추가 자료:

- 정신건강 전국연합회: [www.nami.org/About-Mental-Illness/Mental-Health-Conditions](http://www.nami.org/About-Mental-Illness/Mental-Health-Conditions)
- 캐나다 정신건강 협회: [cmha.ca/documents/mental-illnesses](http://cmha.ca/documents/mental-illnesses)

장애적 관점

##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제거

데이빗 피네간-호지

"저는 이곳에서 수년 동안 목사로 일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제 발표 후 회중의 정신건강에 대해 대화를 이어갔던 몇몇 성직자들 중 한 분이 그동안 뭔가 숨기고 있었던 한 교구민을 언급하며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저는 2011년에 6개월 동안 정신과를 다니다가 제2형 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매를 먼저 맞는" 심정으로 신앙 공동체, 병원 직원, 학생 단체 등과 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그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왔습니다. 암묵적 혹은 드러내 놓고, 우리 대부분은 공동체로부터 "우리는 여기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확인하는 것은 낙인에 강력히 저항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우리의 숨겨둔 아픔과 내면세계를 포함해, 전 자아를 하나님과 서로에게 내보이는 것입니다.

제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려준 지도자들은 회중에게 정신건강 상의 낙인을 찍을 관심도 의도도 없었습니다. 사실, 정반대입니다! 성직자가 되는 것의 어려운 점은 우리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기대와 가정이 자주 우리에게 투영된다는 점입니다. 나눔을 위한 공간을 의도적으로 여는 것은 참여와 보살핌 및 옹호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알이 고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당할 진정 고통스러운 경험과 음식이 부족해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기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말했는데, 만약 앞선 구절들이 어떤 예고였다면 아마도 많은 거절과 다툼과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짧은 구절이 우리 공동체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보살피고, 옹호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면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에 나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은혜로 변화된 이야기들을 나누며 모인다면 어떨까요?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 필요한 것은 식사나 치료 등일 것입니다. 입원 치료로 생겨난 의료 빚을 돕거나 정신 건강 평등을 옹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성 노숙자와 집단 구금시설에 도전하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능하는 정신건강 시스템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필요든지,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 함께 모이고, 은혜로 변화받고 세상에 내보내진 사람들입니다.

데이비드 피니건 호지는 <정신병동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은혜는 선재하는 조건: 신앙, 시스템과 정신 건강 관리>의 저자다. 그는 현재 바튼 칼리지의 대학 원목 및 캠퍼스 사역자로 일한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월슨에서 아내 레이와 강아지 페니 레인과 함께 살고 있다. davidfinneganhosey.com에서 그의 글을 더 읽고 배울 수 있다.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기

정신질환은 종종 화학적인 불균형 그리고/또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그 안의 사람들이 가진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에 걸쳐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영향은 쇠약해지는 것에서부터 가끔 신경쓰이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정신질환은 진단되지 않거나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명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정신질환과 그것이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정신질환을 그 사람이 주변 세상에 반응하는 복잡한 요인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짧게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인사하십시오.
- "어떻게 지내세요?" 또는 "기분 어때요?"라고 묻는 것은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극도로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묻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그렇게 세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만나서 반가워요" 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말들 중 하나입니다.
-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을 그들이 할 수 없다고 대답할 때 채근하거나 압박하지 마십시오.
- 그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알고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끝까지 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 분에게는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겨낼 거예요," 또는 "그냥 안 좋은 하루일 뿐이에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 당신이 그들을 관찰한 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 사람들은 저 환경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환경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 무엇보다 정신질환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능력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주어진 순간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 참고 자료:

- 캐나다 정신건강 협회: [www.cmha.ca](http://www.cmha.ca)
- 정신건강 사역부: [www.mentalhealthministries.net](http://www.mentalhealthministries.net)
- 전미 정신질환 연합회: [www.nami.org](http://www.nami.org)
- 약속으로 향하는 길: [www.pathways2promise.org](http://www.pathways2promise.org)
- 샬렘 정신건강 네트워크: [www.shalemnetwork.org](http://www.shalemnetwork.org)

장애에 대한 관점

## 교회 안에서 정신질환과 함께 살아가기

미셸 가이셀링크

저는 28살 때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왔지만 제 초기 진단은 정신과적 우울증이었습니다. 저 이전에도 저희 교인 중에 적어도 두 명이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제가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공감과 연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 지도부에게 제 진단이 정신분열증으로 바뀌었다고 알렸을 때도 그분들께는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976년부터 저를 알고 있었고 제가 수요일 아침과 저녁 장로들이 이끄는 성경공부를 다니며 수년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잘 알았지만 병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병에 대한 정보를 모으면서 저는 교인들과 공유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 교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심각한 형태의 병을 앓고 있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말하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온화한 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질병의 심각성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이 먹는 약이 좀비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 병원에서 사회복지사 겸 사회사업 책임자로 일했던 어머니는 종종 "대부분의 질병은 중증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약물치료로는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긍정적" 증상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어떤 일에 대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전히 어떤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들은 늘 심술궂습니다. 교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은 제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제가 참 보고싶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듣기 흐릿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제가 먹는 진정제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불면증이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대부분의 약들은 진정제를 포함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해결해야 할 다른 모든 문제과 별개로 잠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제 친형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날에는 제자훈련보다 진정제가 훨씬 잘 듣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저는 저의 믿음을 양육합니다.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래야 합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예배위원회에서 설교문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프랑스로 번역하고 공동체 만찬 팀과 함께 봉사하며 제 노회의 지역 장애인 옹호자로 봉사하며 정기적으로 어머니 그룹의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합니다. 거듭된 결석으로 제 믿음이 줄어들거나 사그라지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지 않은 것은 정신질환이 있고 흔히 복지라고 불리는 사회 보조로 생활할 때 상담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쌀 뿐더러 심지어 퀘벡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정신과 의사도 과로 상태라 상담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인 북미주 개혁신교회가 상담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단이 목회 후보자를 위한 교육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인들을 위한 특별 상담학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화요법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겠지만, 정신 분열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에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들이 증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셔브룩에 살았을 때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조이스 마이어의 책을 이용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만성우울증을 앓고 있는 은퇴 목사인 제 친구는 그것을 행위의 의라고 치부했습니다. 보험을 통해 상담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면 비웃음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태도는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어떻게 하든 도움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미셸 가이셀링크는 몬트리올에 살며 몬트리올의 제일 개혁신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녀의 장애, 정신분열증 때문에 미셸은 장애 사역의 지역 옹호자가 되기를 원했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역 보호소의 이사회에서 봉사했습니다. 미셸은 장애문제에 대한 블로그 글들을 쓰고 그림 그리기와 요리를 즐깁니다.



## 치매 걸린 사람과 대화하기

치매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정신력 저하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알츠하이머는 특정한 질병이지만 치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는 기억에 대한 접근, 지속적인 학습, 추론 능력을 손상시켜 환자와의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나 기억 상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치매 환자와의 대화를 위한 몇 가지 요령들이 있습니다.

-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예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들은 모두 같은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에 대한 접근이 손상되었을 뿐입니다.
- 치매 환자와 대화할 때는 인내심을 갖고 침착하십시오.
- 촉각은 매우 중요할 수 있으므로 몸을 만지는 등의 적절한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 다른 장애 조건과 마찬가지로 유아용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성인에게 하던 대로 말하십시오.
-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말의 이면에 있는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 만약 그 사람이 화가 났거나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면 정말 그런지 물어보십시오.
-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대하십시오.
-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그 사람과 토론하거나, 논쟁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 필요한 경우 이미 대답한 내용을 반복하십시오.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 당신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을 말하고 혹은 그나 그녀가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이야기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들이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상기시키지 마십시오 (제이 프랭크 브로일스 저, <코치 브로일스의 간병인 플레이북> 에서 발췌).

더 많은 정보:

- 알츠하이머 협회: [www.alz.org](http://www.alz.org)
- 캐나다 알츠하이머 학회: [alzheimer.ca](http://alzheimer.ca)

장애에 대한 관점

## 정체성 질문: 치매, 자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존 스윈톤

정체성에 관한 질문, 즉 무엇이 나를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은 복잡하고 도전적입니다. 치매 경험에서 오는 도전에 직면할 때 그 복잡성은 더욱 커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서구 문화권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치매에 걸린 사람은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이 누구인지 묻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주로 그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자서전적이라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 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잊어버렸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정체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다." 근본적인 가정은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고, 만약 우리가 특정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매우 깨지기 쉬운 관점입니다. 당신이 계단에서 떨어져 뇌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기억을 잃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계단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 당신은 계단 꼭대기에 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그렇게 깨지기 쉬운 것일까요?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나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상당히 다른 이해를 접하게 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 기억할 수 있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28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시는 것에 의해 정의됩니다. 무엇보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음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제한적입니다. 기억을 잃는 것이 정체성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간과되기 쉬운 진리, 즉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중요성을 어떻게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신학적 개념은 이해될 뿐만 아니라 경험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급진적인 변화를 겪을 때에도 우리 각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포용과 기억, 그리고 소속감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회적 과제입니다. 포용, 소속, 기억의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찾기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추천 자료:

- 존 스윈튼, <시간의 친구 되기: 장애, 총만한 시간, 그리고 온화한 제자도> (텍사스 와코, 베일러 출판사, 2016)
- 스티븐 사밋, <알츠하이머 경험: 영킨 베일을 통한 삶> (옥스퍼드: 블랙웰 출판사, 2001)
- 케니스 엘 카더, <잊혀진 사람들과의 목회: 영적 렌즈를 통해 본 치매> (내슈빌: 애빙던 출판사, 2019).

존 스윈튼은 스코틀랜드 애버딘 대학교 신학, 역사, 철학 대학의 신학 및 종교학 석좌교수이다. 이전에 그는 정신과 간호사와 병원 원목,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원목으로 일했다. 존은 믿음과 장애의 교차점에 관한 많은 책과 글의 저자다.

## 제 4 장: 더 생각할 문제들

### 돌봄에서 벗어나도록 간병인 돌보기

간병인은 젊거나 나이가 많은 가족 구성원이나 형제자매, 유급 전문가, 교회의 자원봉사자 등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자신을 간병인으로만 대할 뿐 아무도 한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모르는 것 같은 상황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오직 그들만이 그들이 돌보는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선적으로 간병인을 장애인과 함께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간병인들을 위한 휴식을 제공하는 몇 가지 요령들이 있습니다.

- 간병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보는 사람이 그들에게 중요하고 그들의 사랑과 시간, 그들의 에너지와 보살핌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 교회가 간병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간병인을 돌보는 방법으로 그 일에 관련된 사람에게 지원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병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서클" 혹은 "지원망"을 구축하도록 도우십시오.
- 부모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중에 장애가 있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이상적으로는 교회 유아부에서 이 책임을 맡아 준비하십시오).
- 탁아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데리고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매일 직면하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고려하고 다음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 신체적 과제들—다른 것을 먹고, 의료진을 대하고, 보행기를 사용함.
  - 사회적 과제들—고립 극복하기 및 소속감. 간단한 것 중 하나는 카드를 보내는 것이며 가급적이면 빈 카드에 당신의 개인적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보내는 것입니다.

- 심리적인 과제들—자존감,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
- 영적인 과제들—신앙, 소망, 삶의 의미, 하나님과 연결됨.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했는지 알고 있는 것"같은 그 어떤 가식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도를 언급하는 것은 대부분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 간병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싶은지 물어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제안된 질문들을 보려면 85 페이지를 보십시오.

#### 휴식 돌봄에 대한 추가 자료:

- <회전목마 저 너머: 만성 질환 친구를 격려하는 505가지 방법>, 리사 제이 코펜.
- 지원망 정보: [www.nwi.pdx.edu](http://www.nwi.pdx.edu)
- 가족 간병인 연합: [www.caregiver.org](http://www.caregiver.org)
- 가족을 위한 식사 및 기타 도움을 조직하는 웹 기반 프로그램: [www.carecalendar.org](http://www.carecalendar.org)

## 간병인과 장애인 지원에 관한 질문들

여러분의 교회는 이 질문을 사용하여 간병인과 장애인에게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그들을 돕고 잠시나마 쉬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돕기를 원하십니까?
2.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은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3. 당신이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까?
  - a.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
  - b. 다른 가족들과의 시간.
  - c.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위한 시간.
  - d. 당신의 은사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시간.
  - e. 가족이 함께 교회에 앓을 시간.
  - f. 그 외 다른 것들은? 적어 주십시오.
4. 우리가 집안 일을 도와도 되겠습니까?
  - a. 일반적인 청소일들.
  - b. 집 주변 일, 잔디 깎기, 낙엽 치우기 등.
  - c. 배달 음식은 얼마나 자주 필요합니까?
  - d. 제과 배달은 얼마나 자주 필요합니까?
  - e. 식료품 쇼핑.
  - f. 그 외 다른 것들은? 적어 주십시오.
5. 교통편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 a. 진료 예약을 위한 교통편.
  - b. 자동차 정비 도움.
  - c. 레크리에이션이나 기타 사교 이벤트에 대한 교통편.
  - d. 교회 행사 교통편.
  - e. 그 외 다른 것들은? 적어 주십시오.
6.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까?
  - a. 장애 비용 지출 지원.
  - b. 집사회 정기 심방은 얼마나 자주 필요합니까?

- c. 전문 재정 계획.
  - d. 그 외 다른 것들은? 적어 주십시오.
7. 당신의 교회 참여나 출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까?
- a. 위원회에서 일하기.
  - b.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 c. 예배팀, 안내, 영접 또는 다른 주일 아침 활동.
  - d. 영아부 돕기.
  - e. 성경 공부 그룹, 커플 그룹 등에 동참하기.
  - f. 이것을 하기 위해 돌보는 것을 쉬는 것이 필요합니까?
  - g. 다른 것들은? 적어 주십시오.
8. 다른 방면의 (예를들어 의학적 의견 문의, 보험 문제 지원, 정부 지원 요청, 영적 도움 제공, 대변자 확보, 심방 등) 도움이 필요합니까?



#### 온라인에서 더 깊이 알아보기:

이 안내서 내용과 여기에 담지 못한 많은 다른 자료들은 [www.everybody-belongs.com](http://www.everybody-belongs.co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에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장애 인식 주간: 교회 예배 아이디어들

많은 교회들이 1년에 하루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포용, 참여를 높이는 기회인 "장애 인식 주일"을 따로 마련합니다. 미국에서 10월은 장애 인식의 달입니다. 교회는 10월에 장애인들의 은사를 축하하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장애 인식의 달을 기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장애를 가진 삶 (또는 이와 유사한 주제)에 대한 성인 포럼을 계획합니다.
- 아이들에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이나 교통수단을 사용하는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받아주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목적들을 주제로 예배를 계획하십시오. 예배 인도자는 장애를 가진 교회 공동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 둔 몇몇 사람들을 모아 그들이 경험하는 것, 도움이 되거나 상처가 되는 성경구절, 삶의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격려하십시오.
- 예배 계획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은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나누게 하십시오 (예전을 섬기거나, 안내, 성찬을 섬기거나, 음악, 설교 등으로).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여주는" 식의 방법은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와 예배인도자들에게 일년 내내 재능 있는 예배 인도자들을 활용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장애의 조건을 강조하는 언어를 쓰지 말고,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방식과 (즉 그분의 자녀로서) 일치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임을 강조하십시오. 이는 모두가 가치와 존엄, 그리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교회 지도자들과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교회 접근성 평가 (43쪽 또는 [faithward.org/audit](http://faithward.org/audit)) 를 완료하십시오. 교회를 최대한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사회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예배와 교육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며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접근법을 사용하든 계속되는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교회 접근성 정책 서식

공식적인 접근성 정책을 갖는 것은 교회가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교회 접근성 정책 샘플은 접근성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교회들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북미주에 거주하는 다섯 명 중 한 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언제든지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면하는 수많은 최악의 장벽들은 기능적 한계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만든 태도와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러한 태도와 환경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배제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기여하고, 우리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간의 다양성과 공동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향상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신학적 신념, 장애인에 대한 우리 교단의 결정에 따라 [교회 이름]의 대표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합니다.

1. 이 회중 안에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언약의 동반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귀중하게 여깁니다.
2. 우리는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고 그들의 은사를 제자도, 리더십, 및 선교 사역에 실천하고 사용함으로써 회중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3. 우리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에 장애인이 들어오도록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예배, 교육, 소그룹, 봉사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4. 간병인을 포함하여 장애로 인해 영향을 받은 이들의 특별한 영적·신체적·심리적 욕구들을 규명하고 이해하며 배려할 것이며, 우리 회중 내 장애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교인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회중생활에서 배제하는 어떤 정책, 관행, 절차, 건축의 모습들이 있다면 수정할 것이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입니다.

채택일 : [날짜], [교회이름] [대표기구]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인쇄 가능한 형태의 이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려면 [www.faithward.org/accessibility-template](http://www.faithward.org/accessibility-template) 을 방문하십시오.

## 장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보게되는 광범위한 장애 계층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는 장애를 둘러싼 신학이 조금씩 다르고 맥락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몇가지 신학적 관점은 주요 장애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죄와 장애

많은 이들이 장애와 죄의 연관성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상상의 것이라고 치부하지만 교회 예배에는 미묘한 방식으로 그것의 인과관계가 녹아있습니다. 특히 실명은 은유적으로 죄의 상태에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또 특히 찬송가에서 기독교 신앙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를 생각해보십시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과거에 잃은 자였으나 찾았고 보지 못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본다네)."

비난의 신학에 반대하며 장애와 죄를 연결하려는 자들의 설 자리는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마주할 때 누군가 죄를 범했기에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추측했는데 (요한 9:2) 예수님은 그 전제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이 아주 멀리까지 -모든 삶과 인간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에 따라 교회는 장애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소리높여 말해야 합니다.

### 치료, 치유, 그리고 환대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얼마간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 11:5)라는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치유가 누구에게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치유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낙인찍는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서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동기는 그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고치거나" 치료하거나 치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방인을 환영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특별한 요구를 존중하는 존경심의 표현으로 환대를 보여주어야 하며, 이것은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앙공동체는 “고침”이나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다른 종류의 치유를 장려할 것입니다. 즉, 장애가 있는 구성원들이 장애 가운데서도 삶이 가져다주는 용기, 목적과 의미, 변화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서에게 연결됨에서 오는 건강한 느낌 등입니다.

장애인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교회의 경우,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수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가진 기독교적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연합에서 나옵니다.

### 하느님의 섭리, 주권, 그리고 구속의 목적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야곱의 총애받은 아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이 그의 복수를 두려워할 때 형제들에게 확인했던 그의 마지막 말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50:20).

기독교인들이 장애를 침입으로 경험하든,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경험하든 그들은 종종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궁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통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 두게 됩니다. 우리의 ‘왜?’ 라는 질문이 응답없이 지나갈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의 고통이나 어려운 환경,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도 선을 이루심을 알게됩니다. 그런 확신은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일을 허락하시는데 대해 미리 설명하는 것을 바로 멈추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기계적이고 결정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것을 단순히 멈추게 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질문과 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랑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 장애와 부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우리가 가질 미래의 삶에는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한 육체가 가능해져 지상의 삶을 제한했던 장애의 흔적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계시록 21).

그러나, 신학자 에이모스 용 (Amos Yong) 은 부활한 후에도 우리의 몸에는 장애의 흔적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몇몇 성경 본문을 인용합니다.

- 부활하신 예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 (눅 24:37-39; 요한복음 20:19-28).
- 대잔치 비유(눅 14)와 여러 예언서 (예레미야 31:8-9, 미가 4:6-7, 스바냐 3:19-20)에 장애인이 등장하는 것.
- 부활에 대한 사도바울의 설명 (고린도전 15:42-44) 그리고 그의 "연약함의 신학" (고린도전서 4:7-12; 12:7-10).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아직도 상흔을 드러냈듯이, 부활한 우리 육체가 여전히 우리의 장애의 흔적을 드러낼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 고난을 함께하신 그리스도와의 가장 깊은 연합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더 많은 정보:

- 세계 교회 협의회 범교회적 장애 옹호자 임시 선언서 "모두의 모두를 위한 교회": [www.oikoumene.org/what-we-do/ecumenical-disability-advocates-network-edan](http://www.oikoumene.org/what-we-do/ecumenical-disability-advocates-network-edan)
- <장애, 섭리, 그리고 윤리학: 격차를 해소하고 삶을 변화시킴>, 한스 레인더스
- <상처입기 쉬운 교제: 장애와 환대의 신학>, 토마스 레이놀즈

장애에 대한 관점

##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라마 하드윅 목사

목사로서 저는 자폐증에 관하여 전국의 젊은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조언 중 하나는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자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자폐증 진단과 이어진 치료사와의 상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적인 체험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은사를 사용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소외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장애인이 나오는 신약 본문들은 기독교인의 삶과 교회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4:18-19, 요한복음 9:2-7, 갈라디아 4:13-14, 누가복음 10:25-37, 누가복음 14:1-24 참조). 공동체, 자비, 은혜, 연민, 섬김, 환대, 믿음, 순종, 명예와 같은 가치들이 이 본문들에 모두 존재합니다. 교회가 장애인의 리더십을 환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라를 나타내는 사역의 실천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장애인들의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 표현을 통해 우리는 새롭고 삶이 변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므비보셋의 이야기 (사무엘서 9장 참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환영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죽은 친구 요나단과 그의 가족들을 돌보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장애를 가진 아들 므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그를 보살피고 왕의 식탁에 앉을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임의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독특한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은 충성의 제스처(왕상 2:7)이자 중요함의 표시였습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된 것은 높은 영예의 표시였습니다.

다윗의 초대장은 단순히 식탁에 앉을 자리가 아니라 영향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초대였습니다.



므비보셋이 두려워하고 불안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타인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존엄성을 확신시켰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의 분깃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식탁에서 므비보셋의 자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문과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다윗의 관대함이나 자비심에 너무 몰입되지 않기 위해 므비보셋을 말하자면,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장애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처음부터 그의 것이어야했을 식탁의 자리를 내줬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역은 항상 의도했던 것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왕의 식탁에서 환영받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위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자질을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식탁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마 하드워 (리버티신학교 목회학 박사)은 조지아주 이스트포인트의 트라이시티 교회 담임목사이다. 2014년 36세의 나이에 라마는 자폐증 장애인단을 받았다. 그는 장애 특히 자폐증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자주 강연하며 베스트셀러인 <나는 강하다 : 자폐증 목사의 삶과 여정>의 저자이다. 그리고 최근 IVP에서 펴낸 <장애와 교회: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비전>을 썼다.

## 교회의 장애 옹호자 또는 도우미의 역할

회중 내에서 “장애 옹호자,” “접근성 도우미,” 혹은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부르든, 장애를 위해 가장 애쓰는 사람을 인정함으로써 교회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몸예 온전히 동참시키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기독교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더 많은 이들을 환영하고, 제자로 양성하고, 배우고,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장애 옹호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종종 장애인은 삶의 대부분을 자신을 대변하도록 강요받아 왔지만, 접근성 문제 하나만을 위한 도우미나 옹호자가 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 장애 옹호자의 목표

장애 옹호자는 교회에서 장애인들의 필요와 재능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발달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습니다. 보통 그것은 이미 당신의 회중의 일부가 된 사람들의 필요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미래의 필요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과 같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나중에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장애 옹호자는 무엇을 하나

시간, 재능 및 기회가 허락하면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있는 교회 회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적절히 협력함.
- 교회 지도자들이 장애정책을 채택할 것을 지지하고 그 시행을 도움.
- 교회 생활 중 장애인과 함께하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함.
-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상담, 옹호 및 기타 정보 제공 기관 등의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출처의 지원을 포함하여 법률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관련 훈련 기회에 참여함.
- 적절한 뉴스레터 및 기타 출판물의 배포를 포함하여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



**온라인에서 더 깊이 알아보기:**

이 안내서의 내용과 이 출판물에 담지 못한 많은 다른 자료들은 [www.everybody-belongs.com](http://www.everybody-belongs.co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에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제작:



Christian  
Horizons

Elim